

# 기적수업 소개서

2014.12.27

기적수업 한국모임 | [acimkorea.org](http://acimkorea.org)

## 목차

1. 기적수업이란?	3p
2. 기적수업의 구성 <small>What it is</small>	4p
3. 기적수업의 내용 <small>What it says</small>	5p
4. 기적수업이 나오기까지 <small>How it came</small>	6p
5. 헬렌 슈크만 <small>Helen Schucman</small>	7p
6. 윌리엄 테트포드 <small>William Thetford</small>	9p
7. 왓닉 박사가 이야기 하는 자신의 성장 과정과 기적수업과의 만남	11p
8. 역자의 말 : 구정희	13p
9. 기적수업은 왜 하나님과 속죄 같은 기독교 용어를 쓰는 건가요?	17p
10. <기적수업에 관해 자주 제기된 72가지 질의응답> 중 68번 문답	19p
11. 기적수업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20p
12. 기적수업 용어 사전	26p
13. 기적수업 한국어판 출간을 축하하며 : 왓닉 박사	28p
14. 케네쓰 왓닉 박사의 기적수업 동영상 강의	32p
15. 내면의 평화 재단 소개 <small>Foundation for Inner Peace</small>	37p
16. 기적수업 재단 소개 <small>Foundation for A COURSE IN MIRACLES</small>	39p
17. 기적수업 한국모임 소개	42p
18. 내게 기적수업이란? - 기적수업 학생들의 이야기	44p
19. 기적수업 관련 서적	46p
20. 기적수업 출처 표기법	48p
21. 저작권 정보	49p

## 1. 기적수업이란?

하늘의 목소리를 직접 받아썼다는 책들이 무수히 많지만, 『기적수업』은 금본위 화폐와 같다. 이 책은 새천년을 위한 성서로까지 여겨지는데, 이런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중략)**...

독자들 중에는 이 책에 나오는 기독교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종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표현하고자 사용된 형식에 불과하다. 기독교 문헌을 자주 언급하지만,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책이 신성모독적인 뉴에이지 사상과 결합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류 종교들도 인간 저자를 통해 신의 지혜가 직통으로 전달되었다는 주장 때문에 이런 유의 책을 배격하는 데 앞장선다. 그러나 거의 모든 종교가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던가? 특별히 주파수를 잘 맞춘 개인이 신의 말씀을 직접 받고, 나중에 그 추종자들이 그것을 조직적인 수행 체계로 바꾼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 근원이 신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이 책을 열린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여기에서 뭔가 영감 같은 것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좀 더 큰 이해라는 의미에서 기적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는 만물이 서로 분리되었다고 보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우리가 신과 하나임을 깨우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가르친다.

『기적수업』은 우리가 더 높은 힘에 자신을 일치시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임’을 확인해주고, 삶이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적 법칙을 이해하는 교과 과정이라는 놀라운 생각을 전해주는 책이다.

〈내 인생의 탐나는 영혼의 책50 | 원제Tom Butler-Bowden, 50 Spiritual Classics 오강남 역〉에서는 기적수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2. 기적수업의 구성 What it is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적수업은 전체가 학습 교재로서 705쪽의 교과서, 507쪽의 학생용 연습서, 94쪽의 교사용 지침서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적수업을 공부하는 학생은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어떤 책을 먼저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정하면 된다.

기적수업은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심하게 고안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나간다. 기적수업은 이론보다는 적용을, 신학보다는 경험을 강조한다. 기적수업은 “보편적인 신학은 불가능하지만, 보편적인 경험은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지침서, 79쪽).”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기적수업은 비록 기독교 문체로 쓰였지만 보편적인 영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기적수업은 이것이 보편적 교육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수많은 다른 길이 있으며 기적수업은 형식만 다를 뿐이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님에게 인도한다. …(중략)…

기적수업은 최종의 가르침이라 자처하지 않으며, 연습서의 과제도 배움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결국 독자는 내면의 교사에게 맡겨지며, 그가 나머지 학습을 적절하게 이끌 것이다 … (하략)

“기적수업의 구성” 전문 보러가기 <http://cafe.naver.com/acimkorea/42>

### 3. 기적수업의 내용 What it says

실재는 위협받을 수 없고,  
비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기적수업은 이렇게 시작한다. 수업은 근본적으로 실재와 비실재, 지식과 지각을 구분한다. 지식은 진리이며, 사랑의 법 혹은 하나님의 법만을 따른다. 진리는 변경될 수 없고 영원하며 명백하다. 진리는 인식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바뀔 수는 없다.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적용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이 실재다. 진리는 시간과 과정을 초월하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반대쌍이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 진리는 다만 존재한다... (중략)...

지각의 세상에 갇혀 있는 동안 너는 꿈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너의 감각은 꿈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것만을 보여주기에, 너는 도움이 없이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정한 협력자인 답을 보내주셨다. 두 세상을 증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성령의 기능이다. 성령은 한편으로는 진리를 알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허상을 인식하지만 실재라고 믿지는 않기에,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성령은 우리의 사고를 역전시키고, 잘못 배운 것을 지우는 방법을 가르쳐 우리가 꿈의 세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서는 성령의 훌륭한 학습 도구로, 사고의 역전을 가져온다. 하지만 기적수업은 세상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듯 용서가 진정 무엇인지도 독자적으로 정의한다...(중략)...

용서는 우리를 기억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용서를 통해 이 세상의 사고가 역전된다. 용서받은 세상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니, 그 세상의 자비로움에 의해 마침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죄의 포로로 잡아두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모든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한다. 우리의 잘못된 지각을 모두 잊고, 과거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지막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떼실 것이다.

“기적수업의 내용” 전문 보러가기 <http://cafe.naver.com/acimkorea/41>

## 4. 기적수업이 나오기까지 How it came

기적수업은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하기로 갑자기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뉴욕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임상심리학 교수였던 헬렌 슈크만과 윌리엄 테트포드(이하 빌로 표기)다. 사실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그들은 결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힘들어 하고 종종 불편한 관계에 처하기도 했으며, 개인적으로 인정받거나 전문가로서 더 나은 지위를 얻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들은 대체로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으며, 그들의 삶은 수업이 주장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자료를 받아 적은 헬렌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심리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매우 권위 있는 학술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보수적인 이론가이고 무신론자였지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련의 사건을 촉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과의 학과장이 우리의 분노와 공격적인 태도에 지쳤다면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것ियो.”라며 말을 마쳤던 것입니다. 나는 마치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도와 그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기적수업은 분명 그 다른 길입니다 ... (중략)... 전체 작업에는 약7년이 걸렸습니다. 교과서를 제일 먼저 받아 적었고, 다음으로 학생용 연습서를, 마지막으로 교사용 지침서를 받아 적었습니다. 자료를 수정한 부분은 매우 미미합니다. 교과서에 각 장의 제목과 부제목을 달았고, 초기에 있었던 일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적수업의 기록에 참여한 공동 작업자의 이름은 책 표지에 실리지 않는데, 이는 수업이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기적수업은 또 하나의 이단종파의 기초가 될 의도로 주어지지 않았다. 기적수업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교사를 찾는 길을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

“기적수업의 유래” 전문 보러가기 <http://cafe.naver.com/acimkorea/43>

## 5. 헬렌 슈크만 Helen Schucman

헬렌 슈크만 박사는 임상 및 연구 심리학자로서, 뉴욕에 소재한 콜롬비아 장로회 의료센터 산하 의과대학의 의학 적심리학과 종신 부교수로 재직했다. 헬렌은 1965년부터 1972년까지 기적수업을 내면에서 듣고 “받아 적었다”. 이 일이 시작되기 전 내면의 음성은 헬렌에게 스스로를 예수라고 밝혔고, 헬렌은 이 음성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전해주는 바를 받아 적었다. 헬렌이 받아 적은 기적수업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기적수업이다. 받아 적으라.”



기적수업 필사자  
헬렌슈크만 (1909-1981)

출처 : [http://www.acim.org/Scribing/about\\_scribes.html](http://www.acim.org/Scribing/about_scribes.html)

### 헬렌의 약력

1909.07.14. 출생

1921 여름 : 프랑스 “루르드 경험”

1922: 침례교도로 세례를 받다

1931-1935: 뉴욕 대학 (문학학사)

1932 가을: 루이 슈크만을 만나다

1933.05.26. 루이 슈크만과 결혼하다

1938년경: “지하철 경험”

1952-1957: 뉴욕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다

1958년 초 : 윌리엄 테트포드를 만나다

1965년 6월 :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연설

1965년 6월~10월 : 기적수업의 징조 같은 다양한 비전을 보고 경험을 겪다

1965-1972: 기적수업을 받아 적다

- 교과서: 1965.10.21-1968.10.10

- 연습서: 1969.5.26.-1971.2.18.

- 지침서: 1972.4.12-1972.9.7

1969,1971 (1969.12.25, 1971.3.12-1971.11.11) : 헬렌의 초기 시詩

1972년 10월, 1977년 4월 : “소리에 관하여Notes on Sound”

1972년 11월 25일: 케네쓰 왓킨을 만나다

1973년 1월, 1975 년 1월과 3월: 심리치료 소책자

1973년 12월 24일-1978년 3월 20일: 후기 시詩

1973년 하반기- 1975년 초기: 기적수업 최종 편집

1975년 5월 29일 주디스 스커치를 만나다

1975년 여름과 가을 : 기적수업을 포토 옵셋 인쇄로 300부 배부

1975년 9월-12월: "용어해설"

1976년 6월: 기적수업 출판

1977년 9월~11월: “기도의 노래”

1978년 2월 8일~4월 11일: “하나님의 선물” 시집

1981년 2월 9일: 죽음

1988년 7월 4일: 윌리엄 테트포드의 죽음

약력 출처 : <http://www.miraclestudies.net/Scribe.html>



## 6. 윌리엄 테트포드 William Thetford

윌리엄 테트포드 박사(애칭:빌)는 뉴욕에 소재한 콜롬비아 장로회 의료센터의 심리학부서장이자,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의학적심리학과<sup>medical psychology</sup>의 종신교수로 헬렌과 함께 근무했다. 빌은 헬렌의 직장 동료이자 믿음직한 친구로서 헬렌이 기적수업을 받아 적게 된 일련의 사건을 겪고 기적수업을 받아 적는 동안 헬렌을 돕고 지지해주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빌은 헬렌이 속기로 받아 적은 내용을 불러주는 것을 거의 매일 타이핑을 하면서 이 일에 참여했다.



기적수업을 받아 적은 헬렌 슈크만 박사의 친구이자 동료 윌리엄 테트포드 (1909-1981)

출처 [http://www.acim.org/Scribing/about\\_scribes.html](http://www.acim.org/Scribing/about_scribes.html)

### 빌의 약력

윌리엄 N. 테트포드 박사(이하 “빌”)는 1958년부터 1980년까지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의학적심리학 교수로 재직했고, 뉴욕 소재 장로회 의료 센터 심리부서의장이기도 했다.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헬렌 슈크만과 마찬가지로 빌이 겪은 경험도 결국 그를 기적수업으로 이끌었다.

빌은 중서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시카고 남부에서 성장했다. 셋째로 태어났는데, 첫째와 둘째는 어릴 때 다 죽고 빌만 살아 남았다. 어릴 적 빌이 겪었던 종교적 배경은 좀 독특하다. 부모는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회원이라서, 빌은 거기서 운영하는 주일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빌이 일곱 살 때 누나가 죽자, 부모는 크리스찬 사이언스를 탈퇴했고, 그 후 빌은 장로교, 감리교, 연합교회 등 다양한 교회를 사춘기를 겪기 전까지 다녔다. 사춘기 동안 빌은 성홍열을 심하게 앓았고 이로 인해 류마티스성 열로 인한 질병을 쉽게 앓게 되고 심장이 매우 약해졌다. 요양을 위해 빌은 3년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학교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빌은 12살의 나이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인디애나 주에 소재한 드포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심리학 전공 및 의대준비과정을 마쳤다.

1944년 빌은 시카고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학비 조달을 위해, 빌은 대학 금속공학 실험실에서 나온 일자리를 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원자폭탄 연구실이었다. 빌은 거기서 과학 연구원들과 대학 행정실 사이에서 연락을 하는 장교 역할을 담당했다.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빌은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1945년 8월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같은 해 9월에 빌은 심리학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고, 칼 로저스Carl Rogers 아래에서 조교 및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했다. 1949년 심리학 박사학위 취득 후 빌은 워싱턴 정신의학 대학에서 3년을 보냈다. 1954년에는 커네티컷 주에 소재한 <하트포드 의료 센터the Institute of Living in Hartford>의 심리학 부서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다음 해에는 커넬 의과대학에서 일을 계속 하다가, 1958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헬렌 슈크만 박사를 연구 심리학자로 채용했다.

“기적수업”이 출간된 후 빌 테트포드는 “다시 선택하라”라는 제목의 기적수업 발췌집을 공동 편집했다. 그 후 빌은 죽을 때까지 캘리포니아주 티뷰론에서 트래비스 공군기지 내 가정의학과 자문을 담당하고, 티뷰론 태도 치유 센터의장으로 지냈다.

빌 테트포드는 1988년 7월 4일에 사망했다. 사망 당일 빌은 절친인 주디 스킨치 윗슨에게, 독립기념일인 오늘 마침내 나는 자유롭다고 말하고 나서 얼마 뒤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출처 <http://www.miraclestudies.net/Bill.html>

## 7. 왓닉 박사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성장과정과 기적수업과의 만남

나는 뉴욕 브룩클린에 있는 한 유대교 집안에서 성장했다. 유대교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13살이 되던 해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싫증을 느꼈다. 그런 후 나는 한동안 불가지론에 빠졌고 이와 동시에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점점 흥미를 넓혀갔다. 특히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은,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이끌어주었다. 1968년에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마쳤고, 이와 관련해 16세기 스페인의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신비주의 체험에 관한 논문도 작성했다.



케네쓰 왓닉 박사  
Kenneth Wapnick  
(1942-2013)

1970년에 초혼이 파경을 맞은 후, 나는 뉴욕 주립 정신병원에서 수석 심리학자로 일을 했다. 2년간 병원 일에 활발하게 관여하면서도, 조용히 개인적인 생활도 추구하는 가운데, 나는 점점 더 단순한 생활양식에 끌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수도원 생활에 초점이 맞춰졌다. 1972년에 트라피스트 수도사 토마스 머튼의 글을 읽고 난 후 결국 나는 그가 있던 켄터키 주에 소재한 계셰마니 수도원에 이 끌렸다. 너무 놀랍게도, 나는 거기서 마침내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고, 베토벤과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을 때 느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존을 똑같이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가톨릭 수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곧바로 나는 행동에 옮겨 1972년 9월에 세례를 받았다.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믿은 것도 아니었고 예수라는 핵심 인물에 크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직 나는 수도원 생활에 매우 강하게 끌리고 있었고,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최소 세례 후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가톨릭 교회의 방침에 따라 1년간의 계획을 세워 기다렸다. 그 후 두 달 뒤인 1972년 추수감사절 주에 나는 병원 일을 그만두었고, 왜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하는지 확실한 이유도 모르면서 이스라엘로 갈 준비를 했다.

이스라엘로 떠나기 직전에 심리학을 공부하는 친구 신부가 자기가 아는 심리학자 두 명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권해주었다. 헬렌 슈크만과 빌 테트포드였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둘도 영성에 큰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함께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그 자리에서, 당시 그 둘이 이제 막 받아적는 것을 끝낸 기적수업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고, 다만 헬렌이 “받아 적은” 책이 있다는 얘기만 해주었다. 빌은 자기 거실의 구석을 가리켰고, 거기에는 그 날까지 기적수업을 받아적은 7권의 논문 바인더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제 나는 곧 이스라엘 여행을 떠날 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양의 독서를 시작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한 번 보라는 그들의 제안을 사양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머무는 다섯 달 동안 그 책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예기치 않게 두 수도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나는 1973년 5월에 뉴욕에 돌아왔고, 갈릴리에 있는 산꼭대기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한 달 동안만 뉴욕에 머물러야겠다고 계획을 짰다. 하지만 일은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나는 헬렌과 빌을 방문했고, 그때 처음으로 기적수업을 보았다. 곧바로 나는 이것이 내가 찾고 있던 책이라는 것도 모른 채 찾고 있던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적수업은 내가 읽어본 책 중에서 영성과 심리학을 제대로 다루면서 완벽하게 통합한 유일한 사고체계였다. 기적수업 안에 나타난 예수와, 내가 마침내 내 삶에 받아들인 예수는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게다가 나는 헬렌과 빌이 내가 찾고 있던 영적 가족이라는 점도 인식했다. 우리는 서로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고 나는 뉴욕에 남아서 그들이 근무하던 메디컬 센터에 일자리를 구했다. 우리가 함께 한 처음 몇 년 동안은 원고를 주의 깊게 검토하며 보냈다. 구두법, 대문자 표기, 문단 구분, 장과 절 제목 등을 확인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1975년에 주디스 스커치를 만났고, 공동의 노력으로 기적수업은 1976년에 〈내면의 평화 재단〉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출처 〈Awaken from the dream〉 <http://cafe.naver.com/acimkorea/6562>

## 8. 역자의 말 : 구정희

고등학교 시절, 나랑 늘 같이 다니던 친구가 내게 물었다.

"정희야, 너는 하나님을 믿니?"

"아니!"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8살에 첫영성체를, 11살에 견진성사를 받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나는 성당을 멀리하게 되었다. 그 후 기독교 재단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성경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면서 나는 그저 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냉담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인 반감을 가진 10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길이 없지만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잔인하고 죄가 크다고 생각해.

선악과를 인간이 먹지 말아야 했다면 그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나무를 인간이 사는 에덴동산에 두신 하나님이 인간의 원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니?

인간을 에덴동산에서 내쫓은 이유도 사실은 인간이 생명수의 열매까지 먹을까 봐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

카인과 아벨의 사건만 봐도 그래. 카인의 선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선물만 받으신 하나님이 카인의 살인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니?

그뿐이니? 인간을 홍수로 몰살시키고, 노아 가족만 살려주고,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고 다른 민족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 같니? 천국이란 게 있다고 치자.

하지만 인간이 그 안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일 수가 없어.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이라면 의미도 없는 것이고.

나는 영생이란 것도 탐나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면 과연 행복할까?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면 이것저것 다해보고 더 이상 해보고 싶은 것도 없어 너무나 지겨운 나머지 제발 죽게 해 달라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지도 모르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지. 신처럼 영원히 살게 된 인간이 최후에 갈망했던 유일한 소원은 제발 남들 처럼 죽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죽음이 두려워 영생을 원하는 겁쟁이거나, 저 세상에 가서도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하여 하나님이란 절대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기회주의자거나 그것도 아니면 온 우주를 통솔하는 막강 권력자에게 일단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신상에 좋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임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런 내 생각은 지극히 타당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내게는 오히려 이상해 보였다.

그런데 나의 이 생각은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참석한 예배 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4,50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 예배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기에 할 수 없이 지정 좌석에 앉아 있었던 나는 저 멀리 앉아 계신 분을 보면서 내 믿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분에게서 나는 지금껏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았다.

고요함, 확고함, 평화로움

그분\*이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해 나는 아직도 내 10대의 생각을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렇게 평화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죽음이 두려워서, 혹은 저 세상에서 누릴지도 모를 천국을 기대하며 목사가 되어 하나님에 대해 설교를 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해 저 목사님이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다면 저에게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다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알게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리하여 침묵 속에 대답을 기다릴 때 내게 진실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언어로 전할 수 없는 진실이 체험으로 주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내 생애 가장 큰 축복이라 할 만한 사건은 용서에 대한 경험\*\*이었다.

용서는 내가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 주었고 그 즉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시간과 공간이 실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재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말로 전달될 수도 없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 있었다.

아무도 믿어주기 어려운 경험, 심지어 정신이상자로 치부되기까지 했던 경험이 진리임을 적어 놓은 책을 발견했을 때 그 반가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기적수업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실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이토록 놀라운 책이 한국에 알려지기를 소망하였다. 그러나 내가 번역자가 되어 소개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번역은 쉽지 않았다. 까다로운 문장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나는 이 일을 하겠노라고 동의했기 때문이리라.

기적수업을 번역하기 시작한 지 14년, 공식번역자로 선정된 후 8년 만에 기적수업번역이 완성되었다. 때로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때로는 아예 번역을 할 수 없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나는 늘 다시 돌아오곤 하였다.

이제 기적수업은 내 손을 떠나 여러분을 만난다. 오랜 시간 공을 들였지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들이 눈에 띄기도 한다. 그러나 기적수업은 진리를 담고 있기에 여러분을 빛의 길로 인도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나는 장담한다.

끝으로 기적수업에 대해 지도해 주셨던 케네쓰 왓닉 박사님과, 나와 함께 기적수업을 번역한 김지화, 기적수업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던 기적수업 한국 모임의 편집자들과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역자 후기를 마친다.

---

주석 \* 그분은 시간의 끝김을 경험하신 김흥호 목사님이시다.

주석\*\* 용서에 대한 경험은 기적수업 한국모임 자유 게시판에 용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였다. <http://cafe.naver.com/acimkorea/473>



## 9. 기적수업은 왜 하나님과 속죄 같은 기독교 용어를 쓰는 건가요?

사람들은 기적수업의 주제와 전반적인 사상이 우리가 하나라는 보편적 본질이라면, 왜 굳이 기독교라는 특정 형태로 왔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기적수업의 근본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치에 맞습니다. 즉 오류는 발견된 곳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상이 기독교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기든 기독교인으로 여기지 않든, 역사상 세상에서 기독교보다 더 막강한 사고체계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을 깊이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기독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도 예수의 탄생과 죽음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역사에서 보듯이,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았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막대한 영향을, 그것도 지극히 기독교적이지 않은 영향을 세상에 끼쳐왔고 지금도 여전히 끼치고 있기에, 세상의 사고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하려면 먼저 기독교의 오류를 해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수업이 기독교적 형태로 온 이유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 기적수업을 읽는다면 기적수업이 말하는 기독교와 그 사람이 배운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아차릴 것입니다. 헬렌의 남편이자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루이스는 언젠가 내게, 기독교가 기적수업과 같았더라면 반유대주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적수업은 기독교로 인해 야기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기독교 형태로 온 것입니다. 기적수업 전반에 걸쳐, 특히 교과서의 앞 장<sup>章</sup>들에서는 800여 개가 넘는 수많은 성서 문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 상당수를 재해석하였습니다. 3장과 6장의 도입부에는, 예수가 자신의 십자가형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오해를 바로 잡는 강력한 절<sup>節</sup>들이 있습니다 (T-3.I; T-6.1). 예수는 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수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고체계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예

수의 설명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과는 다르지만, 그 원리들은 그가 원래 의도했던 바였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수업이 기독교적인 형태를 띠는 이유이자, 교과서를 통해 수 차례 우리가 예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무신론자이든 간에 다 해당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어느 수준에서 예수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술한 기적수업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즉 예수는 예고 사교 체계의 근본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 기독교를 넘어서려면 우리는 먼저 기독교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는 기적수업의 원리에도 전적으로 합당할 것입니다.

기적수업이 기독교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입니다. 유대인의 경우, 그들은 일찍이 “예수”를 부정적인 단어로 배웠기에 기독교 용어가 명백히 걸림돌이 됩니다. 기독교인의 경우, 기적수업은 그들이 알아 온 기독교와는 다른 형태의 기독교로 표현하고 있기에 마찬가지로 걸림돌이 됩니다. 무신론자에게도 그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결국, 기적수업의 형태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수업이 기독교 용어라는 형태로 적힌 것은 의도적입니다. 예수가 자신이 기적수업의 저자임을 전혀 숨기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실은 세상이 예수를 용서하고, 예수를 잘못 해석한 세상 자신도 용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하략).

출처 <기적수업 입문서> 2장 47~50p, 케네쓰 왓닉 저, 구정희 역

## 10. <기적수업에 관해 자주 제기된 72가지 질의응답> 중 68번 문답

질문 : 기적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왜 그렇게 읽고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까? 왜 예수는 좀 더 쉽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대답 :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래의 영감을 본래 의도대로 놔두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방향으로 변형을 가하려는 유혹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메시지의 원형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려기 보다, 학생들은 기적수업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적수업의 문체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기적수업의 문체는 많은 학생들에게 종종 너무 치밀하고, 생략된 부분도 많고, 애매하고, 또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적수업에서 이러한 문체를 사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수업의 문체를 변경하고 싶다는 것은 예수의 교수방법에 심한 학대를 가하는 것입니다. 기적수업은 수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혀있는 내용을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의도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기적수업은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주로 기적수업 교과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적수업의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곤 했고, 도대체 대명사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느라 고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예수의 의도를 따라 성실하게 이 수업에 임한다면, 그들 대부분은 한 문장이나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고 있던 어떤 것을 벗겨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문자 그대로 “주의깊게 공부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수업의 까다로운 문체는 예수가 바라던대로 진지한 학생들이 예수에게 주의를 기울여 헌신하게 합니다. 일단 기적수업 학생들이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면, 그들은 예수가 자신의 수업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하고, 직접적인지를 발견하고는 경악할 것입니다. 기적수업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기적수업에 관해 자주 제기된 72가지 질의응답>, 케네쓰 워닉 <http://cafe.naver.com/acimkorea/771>

## 11. 기적수업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질문#1385: 기적수업을 공부해 나갈 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이나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적수업(교과서, 연습서, 지침서, 심리치료, 기도의 노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 (1) 공부방법 :

이와 관련해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수업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적수업을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든지 유일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성령 혹은 예수의 안내를 받으며 해나가는 교육과정이며, 교사용 지침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듯이 본 훈련과정은 “항상 개별적”입니다(M.9.1:5; M.29.2:6). 게다가 모든 이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나 규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요인들은 차치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이나 배경이나 능력이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적수업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예수는 교과서와 연습서와 지침서 중에서 어느 것부터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 순서에 관한 결정은 학생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업을 공부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른 방법이나 그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기초를 다지고, 수업의 사고 체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과서를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나중에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T.I.VII.4,5 참고. 그밖의 질의응답 #1163번 질문도 참고.) 또 예수는 연습서 서문에서 “교과서가 제공하는 이론적인 기초는 연습서를 효과적으로 실습하기 위한 기반으로 필수적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W.in.1:1). 이렇게 예수는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는 교과서를 공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2) 기적수업의 내용과 형태

수업에서는 은유적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 형태만 놓고 보자면 모순인 구절이 많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업을 지성적인 차원에서만 읽고 이해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수업의 내용과 용서의 사랑스러운 메시지는, 수업의 형태가 반영하고 있는 진실에 기꺼이 자신을 열겠다는 마음의 용의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 에 기적수업 역시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허상이고 분리는 결코 일어난 적 없다고 말하는 기적수업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의 마음의 한 부분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 때문에 자신이 파멸했다고 믿고 있고, 기적수업이 이 마음 한 부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기적수업은 그 발단에서부터 사랑스럽게 이 조건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고의 논리에 따르자면, 분리라는 "죄"에 뒤따르는 죄책감은 분노한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수업에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외로우시다는 내용이 있는데(T.5.VII.4; T.2.III.5), 이러한 은유가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은 분노나 복수심에 불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분의 추상적인 본성보다는 사랑스러운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공명을 일으키고 도움이 되기에 이러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몸이 없는, 혹은 네가 인식한다고 여기는 형태 속에 있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T.18.VIII.1:7) “... 이 교사는, 분열된 마음이 처해 있다고 여기는 조건에서 그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만 한다.”(T.25.I.7:4).

방금 인용한 두 구절은, 수업이 왜 여러 수준으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왜 은유적 표현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 속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가르칩니다. 몸과 동일시하기로 선택한 우리는 자신이 몸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고 행동하고 “추리reason”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찾아온 것이고, 우리가 부인하고 망각한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알아듣게 하고자 은유와 시적인 이미지와 상징을 수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적수업은 현재 우리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고, 현재 우리는 매우 복잡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이 세상이 매우 복잡한 어떤 사고 체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체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가 가르치는 맥락 역시 엄청나게 복잡한 우리의 외부와 내부 세상 둘 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수업은 이 수업을 필요로 하는 예고의 틀 안에 있다(C.in.3:1).”라고 예수가 말할 때 뜻하는 바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말하듯이, 복잡함이란 예고 게임의 이름입니다(T-15.IV.6:2).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도 이 복잡함을 다루며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기적수업을 시작할 때, 기적수업은 너무 절망적이다 싶을 정도로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현재 처한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수업이 택한 복잡함은 우리를 복잡함으로부터 “구원의 단순성”(T.31.I)으로 이끌어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거짓은 거짓이며,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W.pII.10.1:1)”는 사실을 마침내 다 깨달을 때, 이 목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예고의 사고체계와 이 사고체계에서 나온 세상의 광대한 복잡함 뒤에 숨겨져 있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기적수업에서 도움을 받고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적수업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자신의 영적인 행로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성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기적수업이 상당히 지적인 수준에서 집필되었고, 또 여기에 사용되는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이며 심리학적인 섬세한 개념들이 교과서와 연습서와 지침서 전부에 걸쳐 하나의 가르침으로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기적수업의 대부분은 무운시의 운율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만 놓고 보자면, 이러한 분야들에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거나 지성적인 성향이 없는 독자 혹은 학생은 수업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이 교과서를 읽고 연습서에 실린 연습들을 해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기적수업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친절하고 보다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전보다 화를 덜 내고, 덜 우울해지고,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었다면, 수업의 목적은 성취된 것입니다. 반면 상당히 높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가르침에 공명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요구와 경향에 좀 더 잘 맞는 다른 행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업 자체에서도 말하듯이, 이 수업은 보편적인 수업의 수 천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형태일 뿐이라고 소개합니다.(M.1.4) 기적수업이 모든 이를 위한 수업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종교가 참된 유일한 종교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적수업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수업 전반에 분명하게 함축되어 있는 바란,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줄 어떤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수업이 반드시 그 사람의 그 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구조와 흐름을 살펴보자면, 기적수업은 일반 학술 서적의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다기보다는 교향곡의 전개 방식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반 학술 서적에서는 개념들이 순차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다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복잡해지곤 합니다. 반면 교향곡에서는 어떤 주제가 도입되었다가 잠시 물러났다가 또 다시 소개되며 전개되곤 합니다. 이 때문에 수업에 실린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 꼭 맞물린 매트릭스와도 같습니다. 이 매트릭스 안에서 각각의 부분들은 통합적이면서 수업 전체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각각의 부분은 그 안에서 전체를 은연중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의 주제는 개개인이 삶에서 맞이하는 배움의 기회들에서 뿐만 아니라, 한 사고체계로서도 일관성을 유지한 채 순환하며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배움의 과정은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독자는 순환적인 패턴으로 계속 인도를 받아 나선형의 계단을 오르고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 마침내 나선형 계단의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꼭대기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무운시의 사랑스러운 운율은 이 순환하며 반복하는 주제들에다 더욱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연습서와 관련해서 주어진 유일한 지침은 연습서의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과만 연습하도록 하라(W.in.2:6)”. 연습서의 각 과를 시작하기 전에 연습서의 서문을 읽고, 시작한 이후에도 종종 다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연습서를 해나감에 있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원리도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라. 너는 이 관념들을 믿을 필요도 없고, 수용할 필요도 없으며, 환영할 필요조차 없다. 너는 어떤 관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연습의 효과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습서에 나오는 관념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 없이 사용해야 한다. 준수사항은 그것뿐이다.(W.in.9)”

필요하다 싶으면 특정 과를 며칠 동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더 의미가 있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의 경우 이틀이나 며칠 동안 그 과의 개념에 머무르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 과를 완벽하게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이 될 것이니, 왜냐하면 우리 중 대부분은 연습서에 실린 과제들 중 그 무엇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이미 우리는 상당히 높은 상태까지 영적 성장을 한 상태라서, 연습서의 훈련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습서 95과의 중간 부분에 보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연습서의 진도를 놓쳤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5과에 나온 지침에서는, 예고가가 이 연습의 과정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여러 방식들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성실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그날의 관념을 연습할 때 요구되는 지시를 따르지 못한 우리 자신 (W.p1.95.8:3)”에게 용서로 반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날그날의 지침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는지 낱낱이 지켜보지 않습니다. 예수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가 마음을 용서의 관점에서 더욱 더 많이 생각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돕고, 마침내 우리 삶과 경험의 모든 측면에 우리의 배움을 일반화하도록 돕는 것에만 있습니다.

연습서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연습서를 진지하게 대하며 공부하고 실습하되, 우리 모두가 연습서 내용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자주 태만해지는 것을 기꺼이 용서하려 하는 것입니다. 연습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각 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일을 계속 해나간다면 우리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사실 연습서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서에 나온 지침들을 최선을 다해 주의 깊게 따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되, 이를 따르는 데 실패하더라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습서는 연습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자신을 용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려 했던 실수에 대해 우리 자신을 용서하겠다는 궁극의 용서를 반영합니다.



세 번째 책인 교사용 지침서는 이 세 권 중 가장 쉽고 부담이 없는 책입니다. 수업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교사인 동시에 학생이라는 점과, 교사와 학생을 구분 짓는 선이란 없다는 점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배우는 대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전형적인 가르침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범으로써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기적수업은 결코 형태(=몸)가 아니라 오직 내용(=마음)에만 관심을 둡니다. 교사용 지침서는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기록되었으며, 보다 중요하다 싶은 수업의 주제들 중 일부에 관련된 질문과 대답을 제시합니다. 교사용 지침서 뒤에는 부록 형식의 글이 있는데, 이는 기적수업이 완성되고 2년 뒤에 헬렌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용어 해설>인데, 기적수업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 중 일부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어 해설>의 표면적인 목적은 기적수업 학생을 위해 주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용어가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해설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 해설>은 용어들의 뜻 대부분을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요약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바를 다시 확인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acimkorea/860>

---

기적수업한국모임 홈페이지( [acimkorea.org](http://acimkorea.org) )에 접속하시면, 기적수업에 관해 자주 제기된 72가지 질의응답은 물론 기타 주제를 다룬 수 백여개의 질의응답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12. 기적수업 용어 사전

### 속죄 Atonement

속죄란 성령의 교정 계획으로, 속죄의 목적은 에고를 해제하고 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속죄는 분리 직후에 생겨났으며, 속죄는 분리되어 있는 아들들 모두가 전적인 용서로써 속죄 계획 안에서 자기 역할을 완수할 때 완성된다. 그리고 속죄의 원리란 분리란 결코 일어난 적 없다는 것이다.

### 성령 Holy Spirit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며, 기적수업에서는 은유적으로 분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Answer으로 묘사된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분의 분리된 아들들 사이의 연결고리이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분열된 마음의 간극에 다리를 놓는다. 성령은 우리가 꿈속에 들어올 때 꿈속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 온,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기억이다. 성령은 우리의 허상(=지각)을 보는 자이며, 허상을 통해 우리를 진리(=지식)로 이끈다. 또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음성 Voice이며, 우리가 잊어버렸던 정체에 대해 일깨워준다. 성령은 다리, 위로자, 안내자, 중재자, 교사, 통역자라는 용어로도 일컬어진다.

### 기적 miracle

기적은 마음의 변화이다. 기적은 우리의 지각을 죄와 죄책감과 두려움이 만연한 에고의 세상에서 성령의 용서의 세상으로 바꿔 놓는다. 기적은 마음이 본래 갖고 있는 원인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투사를 뒤집고,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기적은 하나님의 법칙들을 반영하고 이 세상의 법칙들을 초월한다. 기적은 우리가 성령 혹은 예수와 결합할 때 성취된다. 그리고 기적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수단이다. (기적을 외부 현상으로 나타난 변화라고 이해하는 전통적 관점과 혼동하지는 말 것)

## 마술 magic

마술이란 문제가 없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물리적인 방법 혹은 “정신 나간”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짜 문제이며, 이 진짜 문제를 하나님의 대답<sup>Answer</sup>으로부터 은폐할 때 예고가 쓰는 전략이 바로 마술이다. 죄책감을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다른 이의 몸에도 투사하거나(=공격) 자기 몸에도 투사하고는(=병), 문제를 성령에게 가져와 우리 마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는 대신 그 외부에서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마술이며, 이는 “기도의 노래” 부록에서 “거짓 치유”로 언급된다.

---

※ 이밖에도 기적수업에서 다른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http://cafe.naver.com/acimkorea/48> 주소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기적수업 <교사용 지침서> 뒤쪽에 실린 <용어해설<sup>Clarification of Terms</sup>>은 기적수업을 구술한 내면의 음성이 불러준 것이며, 여기서 소개하는 <기적수업 용어 사전<sup>Glossary-Index for A Course in Miracles</sup>>은 케네쓰 왓닉 박사가 기적수업에 대해 정리해서 펴낸 책이다.

### 13. 기적수업 한국어판 출간을 축하하며 : 왁닉 박사

동영상으로 시청하기

<http://youtu.be/bCY8pRlrOCU?list=UUTOS5Q7vpVmwrGZBVXGuZXg>

구정희: 안녕하세요. 저는 기적수업을 번역하고 있는 구정희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이 기적수업 재단과 함께 왁닉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번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출판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이곳 테메쿨라 재단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 출판을 앞두고 제가



왁닉 박사님께 축하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기적수업 학생들에게 보내는 짝막한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왁닉 박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테메쿨라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번에 재단에 와서 왁닉 박사님께 인터뷰를 받은 지 벌써 5년이나 흘렀네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재단과 왁닉 박사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국 기적수업 학생들에게 몇 마디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왁닉: 물론이죠. 일단은, 우리 재단이야말로 구정희씨와 구정희씨 아들 사이먼 군에게 그동안의 작업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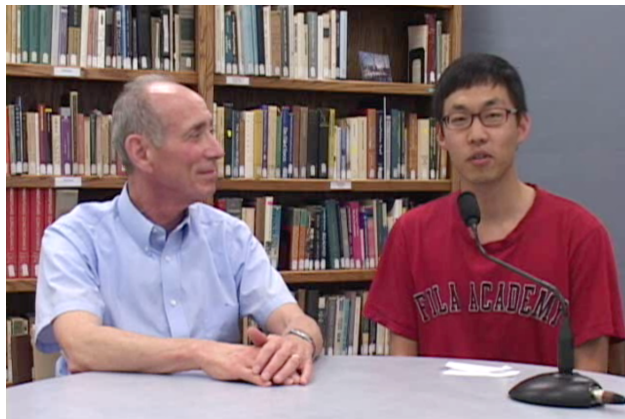
구정희: 감사합니다.

왁닉: 내면의 평화 재단과 기적수업 재단을 대표해서 한국 독자 여러분에게 기적수업의 놀라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읽게 될

구정희씨의 번역은 질이 탁월하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 동안 저는 구정희씨와 싸이먼군과 함께, 지난 5년간 번역했던 내용이 정말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또 한국어로도 매끄럽게 번역되었는지를 놓고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 번역본을 읽어본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매끄럽게 번역이 되었다고 평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게 될 그 번역본이 기적수업 원문이 가르치는 내용을 왜곡 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정희씨와 싸이먼군과 이 훌륭한 번역물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번역이 잘되었고, 다들 뿌듯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화(싸이먼): 안녕하세요. 저는 싸이먼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김지화구요. 여기 이 재단에 와서 이렇게 케네쓰를 만나 번역 작업을 본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 지난 한 3년 동안 기적수업 번역 작업을 같이 했구요. 오늘은 이 자리를 기회 삼아서 케네쓰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웁닉 : 네, 안녕하세요.

김지화: 기적수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주실 수 있는지요?

웁닉: 물론이죠.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적수업의 핵심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란, 몸의 세상에 대한 동일시와 다른 몸들과 맺는 관계 속에

서 경험하는 것들과의 동일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자신이 무가치하고 증오스러우며 불행하다는 느낌에 대해 다른 몸들에게 비난을 돌리곤 합니다. 내면의 교사인 성령의 안내 하에서 이뤄지는 용서는 우리의 주의를 세상과 몸으로부터 마음에게로 돌립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며 마음이 바로 꿈꾸는 자라는 사실은 기적수업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 이 물리적인 우주 속에서 인류라는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겪는 이곳에서의 경험은 사실 꿈과도 같습니다. 용서의 목적 혹은 기적의 행로는 우리가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꿈의 세상과 몸의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기적수업은 우리에게,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란 우리가 분리의 사고체계를 대표하는 에고라는 거짓된 교사를 선택한 것이라 가르쳐줍니다. 이 분리의 사고체계는, 우리가 우리의 근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이 우주 전체를 만들어냈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우리의 문제들은 이곳 우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 대신에 에고를 선택했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수업의 목적, 용서의 의미, 기적이 우리에게 안내하려는 여행이란 오직 우리의 초점을 세상으로부터 마음으로 전환시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기적수업의 첫 번째 책인 교과서의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제목은 “다시 선택하라”입니다.(T-31.VIII)

그러므로 기적수업의 교육과정의 목표는 오로지 우리를 마음으로 돌려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라는 새 교사의 도움에 힘입어 공격 대신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단 대신에 비전을,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에고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수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길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의 작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고와 몸의 동일시를 떠나보내는 일에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온화함과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친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기적수업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기적수업 학생이 된다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친절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친절하게 대할수록, 연습서에서 가르치듯이 ‘친절은 우리를 친절한 자로 창조했다(연습서 67과 중)’는 사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해지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당신이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친절이 바로 기적수업의 심장이요 본질입니다.

## 14. 케네쓰 왁닉 박사의 기적수업 동영상 강의

### 어둠과 절망을 변형시키는 법

질문 : 수업에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로 심란한 것이 아니다(연습서 5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나는 깊은 어둠에 빠져서 어떤 사건이 나를 언짢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하고 있는 그 지점에 이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왁닉 박사 대답 : 우리는 앞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 무엇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이 헬렌에게 말했던 것처럼 “분명 다른 길이 있을거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단어로 나타내든, 여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절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됐어. 아무 것도 먹히지 않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때가 곧 우리가 어떤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허락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때 이 빛은 우리에게 이런 형태로 말하는 듯 합니다. “세상은 내면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 그림으로, 너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T-21.in.1:5)”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면 상태란 결정권자가 에고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 질병과 죽음과 갈등의 세상은 그릇된 마음의 사고 체계가 밖으로 투사된 것입니다. 이 말이 실제 삶에서 뜻하는 것은, 언짢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사소한 것에 언짢아지든 중대한 것에 언짢아지든,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청하는 것은 "작은 용의"가 전부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용의란 이제까지 우리가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저 몸이 문제라고, 다른 몸들이 문제라고 봐왔던 관점에 의심을 품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뭔가에 의해서 내가 언짢아지



고 시달리고 심란해진다는 관점을, 또는 외부에 있는 뭔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다는 관점을 의심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서 깨어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게임의 이름은 ‘마음 없음에서 마음 충만으로 가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당신이 이 목적을 항상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면 기적수업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의 일상을 의미있게 살아가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당장에 이 말을 완전히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연습서의 서문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연습서에 실린 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것이지, 연습서를 믿을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신보고 연습서를 좋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연습서의 내용에 대해 엄청나게 저항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냥 하라고 합니다.

연습서는 “내 일부는 이것을 믿지만 내 다른 일부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연습서를 해간다는 것은, 진리에 저항하는 그릇된 마음도 내게 있고, 또 오직 진리만을 원하는 바른 마음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열된 마음의 상태에 대해 날마다 점점 더 자각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예고를 떠나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예고와 싸우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그것과 투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고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일부가 예고의 분리와 죄와 죄책감과 두려움의 사고 체계에 매혹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투사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개념에 매혹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상연해내고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내 예고든 다른 사람의 예고든 그 예고를 판단없이 바라본다면, 이것이 곧 성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선택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선택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예고를 판단 없이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예수와 성령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고는 판단 없이 절대 보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 없이 절대로!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또 당신이 누군가를 보고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아무 판단 없이 그를 볼 수는 없더라도, 나에게 그는 나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바른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신비로운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판단 없이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매우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누군가를 자신과 다르게 만들고 싶은 유혹을, 이 차이를 판단하고픈 유혹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판단이 당신의 그릇된 마음의 해석이라는 것을, 또 이와는 반대인 바른 마음의 해석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바른 마음의 해석을 선택하길 원치 않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 마음의 해석이 뭐냐면, 이 땅 위를 걷고 있는 모든 이가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확신 없이 홀로 세상을 방황(T-31.VIII.7:1)”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이가!

이 세상에 사는 누구에게나 예고가 있으며, 그들은 예고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사는 누구에게든 바른 마음도 있는데, 그들은 이 바른마음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는 결정을 내리는 마음을,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 수업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작습니다. 그저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른 마음을 선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것을 계속 해나가다보면, 당신은 모든 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화가 나 있고, 정말로 우울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온갖 종류의 신체적 증상이 다 일어나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항상 아픈 자신을 발견하거나,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내가 이것(=예고)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판단없이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도 자신을 욕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진리를 이토록 무서워하는구나. 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이토록 두려워해서 이토록 괴로워하면서도 이 지옥에 제 발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를 인식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다음 두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며, 판단하지 않는다(W-pII.1.4:1, W-pII.1.4:3).” 이 두 문장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냉장고에 써 붙이십시오. 백미러에, 이마에, 속옷에, 모든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뭔가를 하고픈 충동이 일어나거든,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용서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 용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까요? 세

상에는 뭔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상기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마음 없는 피조물입니다.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방법은 세상 안에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보고, 자신의 두려움이 사그라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매일 연습할 핵심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판단에 빠져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뭔가를 고쳐보겠다고 무슨 일을 벌이느라 마음없음의 상태에 빠진 자신을 용서하고는, 그냥 “내가 다시 미쳤었구나”라고만 말하세요. 리어왕에서 한 대목을 인용하자면 “여기에 광기가 놓여 있다.” 그런데 어찌죠? 나는 광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왜 광기를 향해 달려가나요? 난 진리가 두렵거든요.

“나는 진실이기에 부인했던 것을 이제 보기 원하는가?(T-21.VII.5:14)” “아니요, 난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그것을 부인했던 것이었잖아요. 왜 바보 같이 그런 걸 물어봐요? 나는 진리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가 두렵거든요.” 예수에게 어리석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어리석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을 욕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두려워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인정하세요. 이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날마다 연습해 가다보면, 이제 곧 당신의 마음은 자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나는 이것 대신에 평화를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이를 원하는 않지만 최소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고를 선택한 것에 대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세미나의 앞에서 살펴보았듯, 우리가 예고를 믿었고, “정신 나간 작은 생각(=분리의 생각)”을 품은 것에 대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정신 나간 작은 생각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 문제였지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그것이 더럽다고 욕하고 우리 자신도 더럽다고 욕했습니다. “죄를 지었구나. 난 죄인이야. 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그 생각이 본래 갖고 있지 않은 힘을 거기에 부여하게 됩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아갈 수 있는 힘은 온 우주에서 이 결정권자로서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평화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온 우주에서 결정권자로서의 마음뿐입니다. 에고도 당신에게서 이 평화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에고도 이 평화를 당신에게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에게 이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도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기적수업도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에게서 자기의 평화를 박탈한 자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재빠르게 세상에 있는 누군가에게, 다른 것들에게 당신의 마음의 힘을 쥐버리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이를 자각하게 되거든 이런 일을 다시 한 자신을 바라보고는 “또 한 번 어리석은 실수를 했구나. 오늘 나는 사랑을 정말로 두려워했나보다.”라고 말하십시오.

제가 방금 말한 방식 대로 이 문장을 말하십시오. 사실만 인정하고, 아무런 분노 없이, 아무런 화나 불안감 없이 하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acimkorea/518>  
[http://www.youtube.com/watch?v=iI-Ee\\_Pu3sE](http://www.youtube.com/watch?v=iI-Ee_Pu3sE)

---

아래 주소에 접속하시면, 위 강의를 포함해서 워낙 박사의 다른 강의도 동영상과 강의문의 형태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acimkorea.org](http://acimkorea.org) | <http://www.youtube.com/user/acimkoreaorg>

## 15. 내면의 평화 재단 소개 Foundation for Inner Peace

이 책을 펴낸 내면의 평화 재단에 대하여

1972년 주디스와 로버트 스키치 부부는 뉴욕의 비영리 단체법에 따라 내면의 평화 재단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았다. 처음에는 재단을 <초감각 연구 재단(Foundation for ParaSensory Investigation)>이라 불렀다. 이 초기 이름은 당시 재단이 학계에서 초심리학(parapsychology) 연구에 교육적인 관심과 지지를 가졌던 것을 보여준다.

1975년 주디스 스키치는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대학에 근무하던 헬렌 슈크만 박사와 윌리엄 테트포드 박사를 만났다. 서로에게 여러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헬렌과 빌은 주디스에게 비밀처럼 간직해 온 <기적수업>이라는 이름의 그들이 받아 적은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영적 가르침에 대해 동일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안 되어 기적수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내면의 평화 재단>은 기적수업의 저작권을 위탁 받아 출판사로 설립되었다. 내면의 평화 재단에서는 기적수업 초판을 1975년에 발행했고, 그 이후는 알다시피 좀 경이롭다.

1975년 슈크만 박사는 기적수업의 저작권을 내면의 평화 재단(FIP: Foundation for Inner Peace)에 양도했다. 1996년 내면의 평화 재단은 저작권과 로고를 협력 단체인 기적수업 재단(FACIM: Foundation for A Course in Miracles)에 양도했다. 현재 300만부 가량의 기적수업 책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다. 번역한 언어로는 한국어, 아프리카니어, 불가리아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가 있고 더 많은 나라 언어로도 나올 예정이다.



내면의 평화 재단  
[www.acim.org](http://www.acim.org)

자매 단체인 <기적수업 재단>은 기적수업을 위한 학교이자 피정 센터이다. 이곳은 1983년에 케네쓰 왓닉 박사와 글로리아 왓닉이 설립했다. 기적수업 재단은 교육센터로 구상되었고, 지금까지 케네쓰와 글로리아 왓닉 부부가 기적수업 학교로 이끌어 왔다. 이 두 사람은 2013년 케네쓰 왓닉 박사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관리자와 교육자 역할을 했다. 지금은 케네쓰 왓닉 박사를 이어 글로리아 왓닉이 재단을 이끌어 가고 있다. 2014년 6월 13일, 기적수업의 저작권과 로고는 협의를 거쳐 기적수업 재단에서 내면의 평화 재단으로 다시 돌아갔다.

출처 <https://acim.org/AboutFIP/index.html>

## 16. 기적수업 재단 소개 Foundation for A COURSE IN MIRACLES ®

케네쓰 왓닉은 1968년 아델피 대학 Adelphi University에서 임상 심리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는 기적수업을 받아 적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두 사람, 헬렌 슈크만과 윌리엄 테드포드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다. 케네쓰는 1973년부터 기적수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적수업에 대한 책을 냈고, 기적수업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심리치료에도 적용했다. 그는 기적수업을 출판한 <내면의 평화 재단 Foundation for Inner Peace> 이사회 임원이기도 하다.

1983년, 케네쓰는 아내 글로리아와 함께 <기적수업 재단 Foundation for A Course In Miracles>을 설립했으며, 재단은 그 다음 해 뉴욕 크롬폰드 New York Crompond에서 교육 및 재활 센터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1988년에는 뉴욕 주 북부에 <학술 및 치유 센터 Academy and Retreat Center>를 설립했으며, 1995년에는 뉴욕주 교육 위원회 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가 승인한, <기적수업을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 Institute for Inner Peace through ACIM> 교육 기관을 창건했다. 2001년, 재단은 캘리포니아주 테메쿨라로 이전했으며, 이제는 전자통신을 활용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단은 “등대 Lighthouse”란 분기별 소식지를 발행,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다음은 케네쓰와 글로리아가 본 재단의 비전이다.

기적수업을 공부하고, 심리 치료에 그 원리를 적용하고 가르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도, 또한 기적수업 교육 방침 및 기관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이미 기적수업의 사고 체계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기적수업의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는 특히나 어렵다. 따라서 기적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적수업은 교육 과정을 통해 터득해야 하는 가르침으로 보였다. 그 과정이란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성령의 가르침을 배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학습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용 지침서 첫 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언젠가 헬렌과 나(케네쓰)는 기적수업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때 헬렌은 비전에서 꼭대기에 금 십자가가 세워진 하얀 사원의

모습을 한 교육 센터를 봤다고 했다. 물론 그 사원이 상징적인 것임에 분명했지만, 우리는 그 비전이 우리가 어떤 교육 센터를 세워야 할지 보여준다고 여겼다. 우리가 세울 교육 센터는 예수와 기적수업에 담긴 그의 메시지를 알리는 장소가 되어야 했다. 누구나 한번쯤은 먼 바다로 빛을 비추는 등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등대는 빛을 찾는 이들을 불러들인다. 우리에게는 기적수업이 전하는 용서의 가르침이 바로 그 빛이다. 우리는 재단의 교육 형식과 재단이 계획한 기적수업의 비전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예수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형식으로 기적수업을 전해준 데에는 분명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을 근거로 기적수업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계획할 수 있었다. 그 이유들이란,

- 1) 공격이 구원이라고 믿는 마음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 : 마음의 치유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용서란 분리와 죄가 실재라는 우리의 믿음을 해제하는 것이다.
- 2) 예수 및/또는 성령을 우리를 사랑하는 자상한 교사로 삼아, 그들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
- 3) 기독교의 오류 교정 : 특히 괴로움, 희생, 분리, 성찬식 등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여기는 오류를 교정

우리는 언제나 플라톤(그리고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과 그의 가르침을 기틀로 삼았다. 플라톤 아카데미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공부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학습하기 좋은 분위기였다. 거기서 가르침을 얻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 위대한 철학자에게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우리는 추상적인 철학 관념을 경험과 융합시키는 플라톤의 학교가 기적수업 교육 센터의 완벽한 본보기라고 여겼다.

우리는 기적수업 학생들이 수업의 사고 체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재단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적수업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살아가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더욱 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서



를 경험하지 않은 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에, 재단의 구체적인 목표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고,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람들이 그 점을 알고 있어야 성령이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할 수 있다.

재단을 캘리포니아주 테메쿨라(Temecula, California)로 옮긴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자통신 혁명”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주택가 환경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전처럼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기적수업을 가르치는 방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전자통신 매체로 가르침을 제공함으로써, 요즘 시대 빠르게 확산되어가는 전자 통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수업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기적수업의 내용은 여전히 똑같지만, 형태는 21세기에 적응한 것이다.



기적수업 재단  
<http://www.facim.org>

## 17. 기적수업 한국모임 소개

기적수업 한국모임(구: 내면의 평화 기적수업 스터디)은 2001년 2월 9일 구정희 님과 이희범 님에 의해 프리챌 커뮤니티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기적수업을 함께 번역하면서 공부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기적수업 한국모임은 2006년 8월 내면의 평화 재단 한국어 공식번역자로 구정희 님이 선정된 이후 2007년 4월 9일 네이버로 카페를 이전하였고, 2010년 7월 2일 공개 카페로 전환하면서 기적수업 한국모임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기적수업 한국모임은 왓닉 박사님의 지도 아래 번역된 기적수업 공식 번역본 일부와 기적수업에 관한 왓닉 박사님의 해설과 유튜브 동영상 등을 제공하며, 각종 세미나와 지역별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기적수업을 널리 보급하여 기적수업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ACIM 기적수업 한국모임

**카페정보** 나의활동

메니저 **구정희**  
since 2007.04.08 **카페소개**

추천 **카페관리** **이모** | **이모** 통계

가져오단계 4,102

★ 즐겨찾는 멤버 1,673명  
☑ 게시판 구독수 536회  
☑ 우리카페입수 80회


초대 채팅하기

카페 글쓰기

검색

★ 즐겨찾는 게시판

- 전체글보기 (6,666)
- 공지사항
- 운영서 게시판
- 기적수업 번역본
- 기적수업이란? (서문)
- 교과서 (Text)
- 연습서 (Workbook)
- 지침서 & 용어해설
- 심리치료 & 기도의노래
- 기적수업 목상집
- 그림 속 기적수업
- 기적수업 자료실
- 기적의 50가지 원리
- 주요 용어
- 왓닉박사 동영상강의
- 자주 하는 질의응답
- 그밖의 질의응답
- 기타 자료



실재는 위협받을 수 없고,  
비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 '내면의 평화 재단' <기적수업> 한국어판 서문

"내게 기적수업이란?" 댓글달기 이벤트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acimkorea/7772>

▲ 대문접기 | 지난카페대문

공지사항	more	왓닉박사 동영상강의	more
<b>공지</b> 기적수업 합본 온라인 선주문 접수 안내.. [150]	1928	<b>공지</b> 기적수업 합본 온라인 선주문 접수 안내.. [150]	1928
<b>공지</b> 기적수업 입문서 구입 안내 [12]	1435	<b>공지</b> 왓닉박사 <분리와 특별함>에 관한 질..	602
<b>공지</b> 기적수업 한국 모임 후원 안내 [30]	1840	• 헬렌 슈크만의 "기적수업" 공부와 적용 : .. [14]	434
<b>공지</b> 기적수업 길라잡이 - 기적수업을 처음 .. [11]	1846	• [질의응답] "내가 기적수업 공부를 잘 .." [2]	219
<b>공지</b> 기적수업 한국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 [8]	2334	• 왓닉박사 동영상 강의문 : [질의응답] 내.. [11]	374
• 기적수업 출판 기념일을 앞두고 [15] [0]	143	•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중요 다루.. [2]	322
• 기적수업 출판 기념식 및 송년회 안내 [15] [0]	279	•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중요을 다루.. [4]	334
• 2014년 12월 기적수업 한국모임 일정 안내 [9]	464	• 사람들의 현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 [1]	414
• 기적수업 합본 온라인 선주문 접수 안내 (.. [150]	1928	• "사람들의 현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 [22]	589
• 불교 대학원 세미나 (11/29 금) 강사 변경 안..	198	• 프로이드에게 진 빛 3부 "꿈의 편리성.. [2]	477
• 기적수업 출간에 즈음하여 [90]	1019	• "프로이드에게 진 빛 2부 : 꿈의 편리.. [2]	225
• 기적수업 출간 일정 및 최종 리더스 점검 .. [28]	670	• 프로이드에게 진 빛 3부 : "꿈의 편리성.. [9]	350

가. 기적수업 본문

- 기적수업〈서문 : “기적수업의 구성”, “기적수업의 유래”, “기적수업의 내용”〉 전체
- 기적수업 교과서, 학생용 연습서, 교사용 지침서(용어해설 포함), 기도의 노래, 심리치료 본문 중 일부 인용문

나. 미국 기적수업 재단에서 제공하는 왁닉 박사의 강의 및 저작물

- 기적수업 동영상 강의문, 동영상(한글자막)
- 기적의 50가지 원리(교과서 1장 1절)에 대한 해설
- 기적수업에 관해 자주 제기되는 72가지 질의응답과 기타 수 백 여개의 질의응답  
번역 연재 중
- 기적수업 용어 사전
- 기적수업 계간지 〈등대 Lighthouse〉 번역

다. 기적수업 모임 주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 기적수업 정기세미나
- 기적수업 1박2일 세미나
- 기적수업 읽기 모임
- 기타 각 지역 모임

라. 그 밖의 자료

- 그림 속 기적수업 : 그림과 사진이 어우러진 기적수업 본문
- 묻고 답하기 게시판
- 용서 일기 나눔

---

기적수업 한국모임에서는 기적수업 한국 재단 설립을 위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394-740823 기적수업

## 18. 내게 기적수업이란? - 기적수업 학생들의 이야기

아래 글은 2014년 6월 21일부터 내면의 평화 재단 기적수업 한국어판 출간이 될 때까지 기적수업 학생 여러분이 다 함께 참여해서 작성해주신 댓글입니다. 댓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며, 더 많은 댓글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acimkorea/7772>

### 가. 내게 기적수업이란?

-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다.
- 본래 평화를 회복하는 열쇠다.
-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대같다.
- 스스로 갇힌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하는 해방의 길!
- 오해를 풀어주는 책.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는 책...
- 마음속의 이정표를 명확하게 들여다 보게 해주는 도구이다.

### 나. 기적수업 before & after

-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용서 실천으로 조금씩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 그동안 성경 복음서나 일반적인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용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용서를 자기기만이며, 감정을 억압하는 자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면서도 용서라는 단어만 나오면 곤욕스러웠습니다. 개리 레너드의 책을 통해 <기적수업>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야 용서를 아무 모순 없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안해졌고 그것을 유지할 힘을 얻었습니다.

- 과거에 상처 받았던 일들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일부러 꺼내 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씩 꺼내서 마주하고 제 자신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용서하다 보면 마음의 응어리들이 녹아 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저와 OO와의 관계였는데요. 정말 기적과도 같이 우리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엔 OO의 말 한 마디나 행동 하나, 어쩌면 눈빛이나 손짓 하나에도 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OO 때문에 제가 새로 상처 받는 일이 사라졌어요! 과거에 제게 상처를 줬던 - 그랬다고 생각했죠^^; - OO와 지금의 OO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적수업, 화이팅~

#### 다. 나를 울린 딱 한 구절

- 네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의문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도 내가 없이는 불완전하시다. (T-9.VII.8:1-2)
-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 (T-31.VIII.5:2)
- 세상의 목적 중 마음이 추구할 만한 유일한 목적은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보느라 지체하지 말고 세상을 지나치는 것이다. (W-pI.128.2:3)
- 기도는 한 발짝 비켜섬이요, 놓아줌이다. 기도는 귀 기울이며 사랑하는 고요한 시간이다. (S-1.I.5:1)
- 아버지를 용서하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T-24.III.8:13)
- 사랑은 원망을 품지 않는다. (W-pI.68)

## 19. 기적수업 관련 서적

<도서출판 기적수업>에서 이미 출간한 서적과 앞으로 출간할 서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적수업 입문서』 A talk given on A Course in Miracles

- 저자 케네쓰 왁닉 역자 구정희 - 2013년 7월 출간
- 기적수업 입문서는 기적수업을 받아 적게 된 배경과 기적수업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과 예수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기적수업 묵상집 영혼의 선물』 Gifts from A Course in Miracles

- 편저자 로저 월시 프란시스본 - 출간예정
- 기적수업 묵상집 영혼의 선물은 기적수업 본문 중 묵상에 적합해 보이는 문구를 따로 모아놓은 책이다. 영문판은 애초에 세 권으로 나왔으나 나중에 통권으로 재출간되었다.

『기적수업과 기독교』 A Course in Miracles and Christianity: A Dialogue

- 왁닉 박사와 클라크 신부 : 출간예정
- 기적수업과 기독교는 왁닉 박사와 클라크 신부의 대화를 옮겨 놓은 책이다. 기적수업 과 기독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성서의 복음과 기적수업의 메시지를 함께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한 서적이다.

『지복에서 벗어나』 Absence from Felicity

- 저자 케네쓰 왁닉 : 출간예정
- 이 책은 예수가 들려 준 기적수업을 받아적은 헬렌 슈크만의 전기로, 헬렌과 빌과 함께 기적수업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케네쓰 왁닉 박사가 엮어냈다. 이 책은 평생 지속되었던 헬렌의 영적 본성과 예고 사이에 일어난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기적 수업을 받아적는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에는 헬렌이 회상한 경험, 예수가 헬렌에게 준 개인적인 메시지, 헬렌이 꾸 꾸 이야기와 헬렌이 쓴 편지 등 한번도 출간된 적이 없었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예수의 지시로 기적수업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기적수업을 받아 적는 초반기에 헬렌이 꼭 알아야 했던 개인적인 교훈들도 포함되어 있다.

## 〈기적수업 해설서 시리즈〉

저자 케네쓰 왓닉 (출간 예정)

『서문편』 “What It Says” : From the Preface of A Course in Miracles

- 기적수업 서문 중 세 번째인 “기적수업의 내용” 부분은 기적수업과 마찬가지로 내면의 음성이 구술한 것을 받아적은 것이다. “기적수업의 내용”은 기적수업이 가르치는 주요 주제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부분으로, 특히 중요하여 따로 해설서를 출간하였다.

『교과서편』 Journey through the Text of A Course in Miracles

- 기적수업 해설서의 다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교과서편도 왓닉 박사의 강의를 다듬어서 책으로 낸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편은 다른 해설서들과는 달리 문구마다 해설을 하지 않았다. 교과서편은 주제별로 다루고 있으며,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추가해서 다루고 있다.

『학생용 연습서편』 Journey through the Workbook of A Course in Miracles

- 학생용 연습서편은 기적수업 재단이 뉴욕에 있을 때 케네쓰 왓닉 박사가 연습서에 대해 58회 강의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

『교사용 지침서편』 Journey through the Manual of A Course in Miracles

- 교사용 지침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적수업을 가르치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수업을 배워야 할 지 알려주는 부분이다. 교사용 지침서편에서는 지침서의 두 가지 주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지침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분리된 관심사와 공유된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지침서에 나오는 서로 달라 보이는 모든 질문들을 통합한다. 이 주제는 기적수업의 용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두 번째 주제는 성령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주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

## 20. 기적수업 출처 표기법

아래는 미국 내면의 평화 재단(FIP)과 미국 기적수업 재단(FACIM)에서 기적수업 본문에 적용하고 있는 기적수업 출처 표기법으로, 이 두 재단에서 펴낸 글을 읽거나, 원서와 번역서를 대조해서 볼 때 유용합니다.

T : Text	교과서	pI: partI	1부(연습서 1~220과)
W : Workbook	연습서	pII: partII	2부(연습서 221~360과)
M : Manual	지침서	FL : Final Lessons	마지막 과 (연습서 361-365과)
C : Clarification for terms	용어해설	R : Review	복습(연습서)
P : Psychotherapy	심리치료	In : Introduction	도입/서문
S : Song of prayer	기도의 노래	Ep : Epilogue	맺음말

### 인용문 출처 예시

T-27.VIII.6:2	교과서 27장, 8절, 6번 문단, 2번 문장
W-pI.169.8:2	연습서 1부, 169과, 8번 문단, 2번 문장
W-pII.12.1:3	연습서 2부의 12번째 주제, 1번 문단, 3번 문장
W-pII.227.1:1-7	연습서 2부, 227과, 1번 문단, 1~7번 문장
M-12.3:3	지침서 12번 주제, 3번 문단, 3번 문장
C-in.4.4:5	용어해설 서문, 4번 주제, 4번 문단, 5번 문장



## 기적수업 소개서

© 기적수업 한국모임, 2014

- 이 책의 전부 혹은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시려면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에 인용된 <기적수업의 구성>, <기적수업의 내용>, <기적수업의 유래>에 대한 저작권은 미국 기적수업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이 책에 소개된 케네쓰 워닉 박사의 강의와 글은 미국 기적수업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 『기적수업 소개서』 버전 : 1.0 (2014.12월 발행) :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최신 버전은 기적수업 한국모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 이 소개서나 도서출판 기적수업에서 출간한 『기적수업 합본』과 『기적수업 입문서』 등에서 혹시 오타나 오역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경우 [acimkr@naver.com](mailto:acimkr@naver.com)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기적수업한국모임 [acimkorea.org](http://acimkorea.org)>의 “바로잡습니다”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 기적수업 내면의 평화 재단 저작권 정보

내면의 평화 재단에서 출판한 기적수업 3판 영문 합본과 모든 음성 기록물과 비디오(CD, DVD)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와 “학생용 연습서”와 “교사용 지침서”에 해당되는 섹션은 현재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허가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의 평화 재단 버전의 기적수업에 나오는 구절을, 더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절들을 인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영어판 기적수업의 모든 출판물 중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해당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문” (기적수업의 구성, 내용, 유래)
- “용어해설”
- “기도의 노래”
- “심리치료 : 목적, 과정 그리고 실제”
- 독자적인 문단, 문장 번호체계

위 부분들은 기적수업 3판(2007년)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기적수업과 “부록들”의 모든 번역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기 부분에서 몇몇 구절을 문자나 음성의 형태로 인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간주되지만, 그 이상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적수업 재단 (FACIM)이 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래의 주소나 [www.facim.org](http://www.facim.org)에 접속해서 연락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The Foundation for A Course in Miracles

41397 Bueking Drive

Temecula, CA

92590

Phone: 909 296 6261

<http://acim.org/AboutFIP/copyright.html>

이 수업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너의 친구가 너와 동행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는 헛되이 부를 수 없다

그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는 답을 가지고 있으며

네가 그에게로 돌아서서 청하기만 하면

그는 기꺼이 그 답을 줄 것임을 확신하라

너를 힘들게 하는 듯한 그 무엇에든

그는 네게 필요한 답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성령의 확실함은 너의 것이다

성령께 청하기만 하면

네게 그의 확실함이 주어질 것이다

- <기적수업 학생용 연습서> 맺음말의 첫문단에서